

‘제주의 아들’ 임성재 PGA 2승 사냥 나서



PGA 투어 아널드파머 인비테이셔널 출전 파울러와 같은 조... 지난해 공동 3위 선전

‘강철 체력’으로 유명한 임성재(22·사진)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첫 우승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2승 사냥’에 나선다. 임성재는 5일(한국시간)부터 나흘간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베이힐 클럽 앤 로지(파72·7454야드)에서 열리는 PGA 투어 아널드 파머 인비테이셔널(총상금 930만달러)에 출전한다. 2일 끝난 PGA 투어 혼다 클래식에서 우승, 자신의 PGA 투어 첫 승을 달성한 임성재는 이번 대회에서 주요 선수들을 모아 배정하는 조 편성 결과를 받았다. 임성재는 이번 대회 1, 2라운드를 리키 파울러(미국), 마크 리슈먼(호주)과 함께 치른다. 파울러와 리슈먼은 모두 PGA 투어 5승을 따낸 선수들로 임성재

까지 세 명 모두 신인왕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신인왕 출신 임성재가 투어 톱랭커들과 같은 조에서 경기하는 것이 처음은 아니지만 우승 직후 대회에서 4개의 ‘주요 그룹’ 중 하나에 편성된 점이 눈에 띈다. 특히 임성재는 지난해 이 대회에서 우승자 프란체스코 몰리나리(이탈리아)에 3타 뒤진 공동 3위라는 좋은 성적을 낸 기억도 있다. 다른 주요 그룹으로는 브룩스 켈카(미국)-제이슨 데이-애덤 스콧(이상 호주), 필 미켈슨-브라이슨 디샴보-패트릭 리드(이상 미국), 저스틴 로즈(잉글랜드)-로리 매길로이(북아일랜드)-몰리나리가 편성됐다. 아널드 파머 인비테이셔널은 한 시즌에 5개가 열리는 인비테이셔널 대회 가운데 하나다.

출전 선수 규모가 120명 안팎으로 156명 정도가 나오는 일반 대회보다 작고 ‘초청 대회’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출전 자격을 일반 투어 대회에 비해 대회 조직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크다. 세계 랭킹 10위 이내 선수로는 1위 매길로이를 비롯해 3위 켈카, 7위 스콧, 9위 리드, 10위 토미 플리트우드(잉글랜드) 등이 출전한다. 바로 다음 주에 ‘제5의 메이저’로 불리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이 열리기 때문에 이번 주를 실전 감각을 이어가는 기간으로 택한 선수들과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 전념하기 위해 쉬는 선수들로 나뉘었다. 한국 선수들은 임성재 외에 안병훈(29), 강성훈(33), 김시우(25)가 출전한다. 교포 선수로는 대니 리(뉴질랜드)와 케빈 나(미국)가 나온다. 강성훈이 지난해 이 대회에서 공동 6위, 안병훈은 공동 10위를 차지하는 등 선전한 바 있다. 연합뉴스

프로야구 ‘팀당 144경기 예정대로 진행’

KBO 사무국·구단 실행위원회 매주 회의서 개막 시점 결정

KBO 사무국과 프로야구 10개 구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이를 매주 지켜보고 정규리그 개막 시점을 결정하기로 했다. KBO 사무국은 3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10개 구단 단장을 모아 실행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정규리그 개막 일정을 논의했다. 단장들과 KBO 사무국은 예정대로 28일 정규리그 개막을 준비하되 매주 화요일 모여 상황을 논의하고 개막 일정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 각 팀이 정규리그를 준비할 수 있도록 개막 2주 전에는 개막 시점을 정하도록 합의했다. 실행위는 이번 내용을 10일 열리는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다시 말해 28일 정규리그가 개막하려면 14일엔 개막 일정을 확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류태환 KBO 사무총장은 “매주 실행위와 이사회를 개최해 개막 시점을 결정하도록 했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됐다고 해도 감염 가능

성을 최소화하고 각 팀이 정규리그를 대비해 페이스를 조절할 수 있도록 개막 2주 전에는 일정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KBO 사무국과 10개 구단은 또 원래 짠 일정보다 늦게 정규리그를 개막하더라도 올해 팀당 144경기를 모두 치르기로 했다. 도쿄올림픽 휴식기와 포스트시즌 일정을 고려하면 올해 프로야구는 최장 11월 말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KBO 사무국은 아울러 국외 전지 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팀끼리 실전 감각을 키우고자 벌이는 연습경기도 감염 확산을 우려해 사대 전지 전까지 자제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다. 일부 구단 단장들은 사대 전지 후 정규리그를 시작했다가 선수단에 감염이 생기면 그때엔 정규리그를 중단하긴 어려운 만큼 4월 중순으로 개막을 늦추자는 의견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야구는 코로나19 사태로 출범 후 최초로 시범경기를 전면 취소했다. 이에 따라 KIA 타이거즈, 롯데 자이언츠, 삼성 라이온즈, LG 트윈스 등 미국, 호주, 일본 등에서 훈련 중인 각 구단은 현지 훈련을 연장하고 3월 중순 귀국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한국, 도쿄 올림픽 출전권 152장 확보

선수 최대 200~220명 출전 예상돼... 경쟁은 현재 진행형 안배 종목서 추가 출전권 획득 선수 나올 가능성도 있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2020년 도쿄올림픽이 과연 제대로 열릴지 걱정하는 시선이 많다.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 출전을 선수 인생의 최고 목표로 삼고 구슬땀을 흘려 온 종목별 국가대표 선수들은 어느 때보다 무거운 마음으로 대회를 준비 중이지만, 출전권 획득 경쟁을 멈출 수 없다.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3일 현재 도쿄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한 선수는 구기 종목 선수들을 합쳐 모두 152명이다. 전날 육상 남자 장대높이뛰기의 진민섭(28·여수시청)이 도쿄올림픽 출전 기준기록(5m 80)을 날아올라 한국 선수단 152번째로 도쿄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보통 올림픽 개최 한 달 전까지

올림픽 출전권을 내건 종목별 자격 대회가 열리는 만큼 도쿄행 티켓 경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올해엔 코로나19 여파로 각 종목의 대륙별 자격 대회가 연기됐기에 출전권 다툼은 예년 대회보다 길게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체육회의 한 관계자는 “역도, 레슬링, 펜싱, 배드민턴, 유도, 골프 등 종목은 랭킹 포인트에 따라 올림픽 출전자가 정해진다”며 “우리나라가 약한 육상, 수영 등 기초 종목에서도 나라별 안배 정책에 맞춰 추가로 도쿄올림픽 출전권을 얻는 선수가 나올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남녀 하기가 36년 만에 올림픽 본선행에 동반 실패함에 따라 대한체육회는 올림픽 출전 선수가 크게 줄어들까 우려했다. 하지만, 남자 럭비와 여자 농구

출전권을 따내면서 하키의 부진을 상쇄했다. 단체 종목 출전 선수가 많아야 그에 비례해 선수단 지원 인력과 임원의 AD(선수촌·경기장 출입 허가증)도 늘어나기에 대한체육회는 한숨을 돌렸다. 체육회는 지금 페이스라면 도쿄올림픽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선수들이 200명에서 최대 22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여자 축구(18명)와 남자 핸드볼(14명)도 도쿄행을 기대하는 종목이다. 여자 축구대표팀은 4월 이후 중국과 플레이오프를 치러 도쿄행에 도전하고, 4월 최종 예선에 출전하는 남자 핸드볼의 도쿄행 가능성은 ‘50대 50’이라고 한다. 최대치를 고려하면 도쿄올림픽에 참가하는 우리나라 선수들은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규모를 넘어선다. 리우 올림픽에는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210명) 이래 32년 만에 가장 적은 204명이 참가했다. 연합뉴스

최지만, 시범경기 첫 홈런 탬파베이 중심타자로 우뚝

최지만(29·탬파베이 레이스)이 2020년 첫 ‘손맛’을 봤다. 최지만은 3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세라소타의 에드 스미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시범경기 볼티모어 오리올스와의 방문 경기에 5번 타자 1루수로 선발 출전해 2타수 1안타 2타점 1볼넷으로 활약했다. 하이лай트는 6회였다. 1-2로 뒤진 6회 초 2사 1루, 최지만은 상대 좌완 브루스 치머만을 공략해 왼쪽 담을 넘어가는 투런 아치를 그렸다. 올해 스프링캠프에서 처음 친 홈런이다. 최지만은 2회 첫 타석에서 1루 땅볼에 그쳤다. 그러나 4회 1사 2루에서 볼넷을 얻어 홈루에 성공했다. 최지만은 올해 출전한 6차례 시범경기에서 모두 한 차례 이상 홈런을 쳤다. 6회 세 번째 타석에서는 홈런포를 쏘아 올리며 탬파베이 중심 타자의 자존심을 세웠다. 연합뉴스



이청용 11년 만의 K리그 복귀... 울산 현대가 3일 오후 “국가대표 미드필더 이청용을 구단 최고 대우로 영입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울산은 이날 오전 “이청용의 전 소속팀인 독일 VfL 보훔으로부터 2월 말 이적 합의를 받았다”고 밝힌 뒤 입단 절차를 마무리했다. 연합뉴스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6:1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인강극장 8:25 아침마당 9: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6:00 일어나 세계속으로 6: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8:00 KBS 아침 뉴스타임 9:00 꽃길만 걸어요(재) 9:40 무한리플 샐러드 10:40 지구촌 뉴스 11:00 포레스트(재)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나쁜 사랑 8:30 TV매거진 해피플러스 9:30 930 MBC 뉴스 9:45 기분 좋은 날 10:45 MBC 뉴스 특보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20 JIBS 아침 뉴스 7:35 모닝와이드 3부 8:35 잘 못 보실래요 9:10 좋은아침 10:10 SBS 뉴스 10:30 삼맛 나는 오늘 11:00 애니갤러리 11:30 애니메이션 런닝맨2 11:45 헬로키토 유니버스	7:30 뽀롱뽀롱 뽀로로 8:00 땀방울 유지원 9:15 마사와 곰 10:00 특집 부모투쟁 0.1%의 비밀 14:55 용감한 소방차 레이 15:10 로보카 폴리 15:55 얼마까지 16:40 땀방울 친구들 18:00 생방송 토크! 보니 하니 20:00 마일도사 21:50 EBS 다큐프라임
12: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3:00 시사기획 창(재) 13:50 솔라 14: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5: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16: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사시간전 17: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2:00 포레스트(재) 13:2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13:50 한식의 마음(재) 14: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15:0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15:10 자동차부착식 위키 2 15:30 TV 유지원 16:00 무한리플 샐러드(재) 17:00 시노스톤 프리임 17:30 강력추천 배틀 트립	12:00 12 MBC 뉴스 12:10 MBC 특별생방송 #함나라 대한민국 #코로나19 함께 이겨냅시다 13:50 2시 뉴스 외전 15:20 나쁜 사랑(재) 16:00 두 번은 없다(재) 17:00 5 MBC 뉴스 17:25 다크에세이 그사람	12:10 SBS 12 뉴스 12:20 JIBS 뉴스 12:40 아무도 모른다(재) 14:00 뉴스브리핑 16:00 행복실제 알짜배기 17:00 SBS 오 뉴스 17:45 JIBS 뉴스	제주 CBS FM 93.3MHz, 90.9MHz 7:00 김덕기의 아침뉴스 7:30 김현정의 뉴스쇼 9:05 그대참가에 이한철입니다 12:00 CBS넷종합뉴스 12:05 찬양이 있는 숲길 13:30 생명의 샘 15:00 CBS 뉴스 17:05 시사매거진 제주 18:00 CBS 저녁종합뉴스 18:15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21:35 라디오강단 22:05 백영경의 가스펠 아워
18:00 6시 내고향 19:00 7 오늘 제주 19:40 특별생방송 코로나19 함께 이겨냅시다 20:30 꽃길만 걸어요 21: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21:35 KBS 뉴스 9 제주 22:00 생로병사의 비밀 22:55 코로나19 통합뉴스룸 23:00 더 라이브 23:4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18:00 KBS 경제타임 18:30 2TV 생생정보 19:50 유아한 소녀 함께 이겨냅시다 20:30 글로벌24 20:55 살릴하는 남자들 1부 21:30 살릴하는 남자들 2부 22:00 포레스트 22:35 포레스트 23:10 개그 콘서트 스페셜(재)	18:25 생방송 오늘 저녁 19:30 MBC 뉴스데스크 20:55 더 게임:0시를 향하여 21:30 더 게임:0시를 향하여 22:05 실화탐사대 1부 22:35 실화탐사대 2부 23:05 라디오스타	18:00 백종원의골목식당(재) 19:00 올레길 놀영취향 김대보편 19:30 행복추진 해피타임 20:00 SBS 8 뉴스 20:35 JIBS 8 뉴스 20:55 본격연예 한밤 1부 21:30 본격연예 한밤 2부 22:00 트롯신이 떴다 1부 22:40 트롯신이 떴다 2부 23:10 백종원의 골목식당 1부 23:50 백종원의 골목식당 2부	KCTV 8:00 대한민국 구석구석 8:30 탐사 프로젝트 제주 물 9:30 글로벌 아카데미 11:40 배워보서 관광중국어 13:10 일요KCTV 다크 14:30 탐사 프로젝트 제주 물 15:10 글로벌 아카데미 16:10 일요KCTV 다크 18:00 대한민국 구석구석 20:00 글로벌 아카데미 21:00 KCTV 종합뉴스 22:30 탐사 프로젝트 제주 물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TBN 제주교통방송 제주시 FM 105.5MHz 서귀포시 FM 105.9MHz
KBS ☎ 064-740-7331 / MBC ☎ 064-740-2432 / JIBS ☎ 064-740-7800 / KCTV ☎ 064-741-7723 / 제주CBS ☎ 064-748-7400

오늘의 운세 4일

김홍상 지단(해) 작명역학 원장
경기도 평곡원 교수(010-5233-6136)

36년 반가운 대화의 상대를 만나 자신감을 얻는다. 48년 활동력이 많아지나 일의 성사는 다소 지체. 60년 윗사람과 집안일로 인해 부부문제도 비화. 다툼이 생긴다. 72년 이성문제도 상대가 나를 의심하니 사정없이 조심할 것. 84년 즐거운 시간을 가지나 내 뜻대로 모든 일이 성사되기에는 힘들다.

42년 과도한 투자는 위험천만. 성실과 알뜰함이 번영을 준다. 54년 휴식은 또 다른 활동과 효율성을 높이는 보약. 조용하고 차분한 안정이 필요. 66년 기쁨과 환희가 모든 것을 좌우하니 심사숙고하고 업무 처리는 냉정하게 하라. 78년 타인에게 업무를 맡기지 마라. 90년 건강주의. 갑작스런 외출 자제.

37년 몸이 부추져 바쁘지만 주변 도움이 있다. 49년 문서계약, 매매가 다소 지연되거나 하자있는 문서로 스트레스. 61년 뜻하지 않는 희소식이 기쁨이 있거나 내일을 위한 분주함이 있다. 73년 스트레스로 정신적 불안감이 발생. 여성은 남편과 다툼, 갈등. 85년 의욕적으로 일을 추진하지만 능률은 기대치 이하.

43년 믿었던 자선 때문에 답답하고 걱정이 많다. 여유를 가져라. 55년 객식구가 늘고, 바쁜 일정으로 피곤하다. 말조심하라. 67년 교육과 명심은 자신의 가치와 품격을 저해하니 겸손하라. 79년 귀인을 만나는 행운이 있으나 대인관계에서는 인정을 받는다. 91년 마음을 비우고 협력하라.

38년 하는 일에 성사와 기쁨, 자선으로 인한 결경사. 50년 재물에 이익이 생기며 몸이 즐겁고 바쁘다. 62년 보충 설정은 재물의 손상을 의미. 손재주 유의. 문단속 철저. 74년 할 일이 늘어나고 직업이 생기거나 이성교제가 활발. 86년 친구와 동료, 이성, 애인을 만나 즐거우나 무리하지 말고 조기 귀가.

44년 자선이나 아랫사람의 존경과 도움을 받는다. 56년 재물의 지출이 우려되니 외출시 현금지참 주의. 68년 뜻하지 않은 자식문제도 걱정이 많으며 친정(처가)에 도울 일이 생긴다. 80년 직장관계로 스트레스를 받고 이성문제가 발생되니 이해를 구하라. 92년 자금 지출은 다소 있으나 기쁨이 더 크다.

39년 고민하던 일이 시원하게 해결. 51년 얻은 만큼 목돈이 필요하게 되고, 배우자와 의견다툼. 63년 답답함이 있으며 하는 일에 하자가 우려. 몸이 많이 지쳐 쉬어가는 날. 75년 직장문제나 하던 일에 장애가 오거나 변동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말조심. 87년 자격, 취업시험이 있으면 불리하고 재물 지출.

45년 일거리 활동력이 건강회복을 가져온다. 바쁘게 활동하라. 57년 이동 변화가 생기고 외출할 일이 생긴다. 뜻밖에 친구나 교제가 진행된다. 69년 귀인을 만나 판교가 개척되고 업무의 효율성이 오른다. 81년 취업이나 직장문제 해결. 여자는 결혼은. 93년 다소 답답함이 있을 수 있다. 걱정은 건강을 해친다.

40년 하는 일이나 여성은 남편 때문에 예민해지거나 갈등. 52년 배우자의 덕담이 행운을 가져온다. 가정과 행복을 위한 배우자의 격려의 한마디가 필요한 때. 64년 사업의 매출 증대. 자식때문에 기쁨이 두배. 76년 친구와 동료의 대화가 즐거우며, 이성관계가 길. 88년 과도한 활동력은 자제. 폭주는 삼가라.

46년 자선이나 아랫사람 등의 문제로 목돈 지출 우려. 58년 자기 세력이 커지니 씩씩이가 커진다. 군중심리 현혹되지 마라. 70년 직장이나 가정사에 갑작스런 일이 발생. 자식 단속을 잘하라. 82년 이성간의 오프로 다툼이 있으며, 자급에 대한 걱정 있다. 94년 가벼운 운동으로 기분 전환 및 건강에 신경을 쓰라.

41년 내 자존심을 버리고 아랫사람의 의견 청취. 고혈압 주의. 53년 너그러운 마음과 아량으로 오늘의 건강을 유지. 화내면 나만 손해. 65년 업무과중은 피로누적으로 과로사의 원인. 한 톨보 조율이 필요. 77년 과도한 재물 지출이나 이성문제 발생 우려. 89년 일이 다소 지체. 꼭 필요한 생필품 구입 의 지출 자제.

47년 친구 동업자와 재물 문제, 관제구설 우려. 부부 불화. 59년 귀인의 도움으로 재물이 늘어나며 부부 화합. 71년 나의 뜻이 펼쳐지고 타인이 인정받게 된다. 희망을 준비하는 자는 소신을 가져라. 83년 대인관계 이견이 생기고, 의견충돌과 재물 지출. 95년 친구의 문제로 걱정이 생기고 불안정.